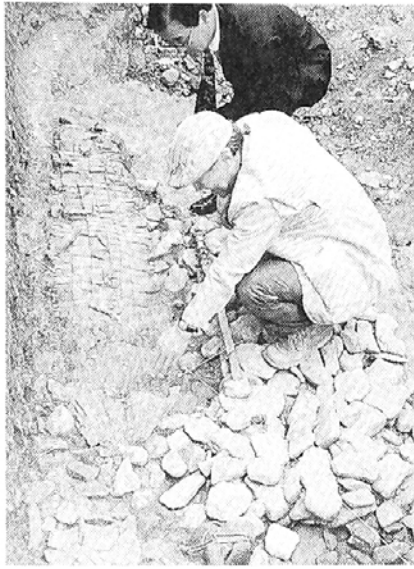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급



◇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현실에 맞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제도의 근간이 되는 문화재보호법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의 상당부분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보다 확고한 관계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 외에도 소중한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전승할 수

'문화유산의 해' 맞아 전문가들 주장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포함)은 지난 82년 같은 이름의 일반법을 본떠 만든 이후로 96년 1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부분부분 개정돼 왔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아직까지도 국가, 자

조)를 명시해 놓고도 부득이한 경우 발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둔 현행법규는 유명무실한 법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발굴이나 보존 또는 이전복원 등 일체의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공사 시행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조항(제74조) 역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작업도중 문화재급 유물이 나와도 공사비 추가부담은 물론 공

발굴 사전조사·국가비용 부담제 도입 절실 古都 보호법 제정·도굴 등 처벌규정 강화

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에만 영향이 미칠 뿐 문화재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개발논리가 앞서는 현대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문화재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우선 개정돼야 할 것으로 꼽히는 것은 모든 곳에서 문화재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공사에 앞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발굴을 할 수 없다는 조항(제44

기연장을 우려한 시공자가 아예 신고조차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대규모의 문화재 파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분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지만 그 인을 파헤쳐 물건을 꺼내 신고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한 조항(시행령 제33조)도 수정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발굴기관이 2년 이내에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돼 있는 현행조항(시행령 제31조)의 강력한 시행도 필수적인 요소다. 현실적으로 이를 엄격히 지키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경주, 부여 등 역사적인 고도(古都)가 있는 곳에 한해 '고도문화재 보호법'의 별도 제정, 문화재의 고의적 파괴·도굴·매매·발굴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 및 법적 시효기간의 강화 등도 반드시 개정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 정비에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규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해 온 이선복 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는 '현행 문제의 제도·법규가 인력과 예산부족이라는 현실문제와 상충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문화재보호에 많은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하기전 문화재사전조사제 도입, 발굴비용의 국가부담, 매장문화재기금 또는 발굴전문 공공기구 설치 등 관련법규의 개정과 함께 행정절차의 개선 및 기구개편 등의 부수적 조치가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法數로 배우는 불교

<7>

이공(二空)

송나라때의 고승중에 자원선사(子元禪師)라는 분이 계셨다. 온주(溫州) 지방에 있는 능인사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몽고군이 쳐들어와 스님을 잡아 놓고 목에 칼을 들이댔다. 보통사람을 잡으면 두려움과 절망이 앞서 달려달라고 애걸을 하거나 자포자기로 한탄을 하는 법인데 스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한편의 시를 읊조렸다.

乾坤孤草無地(건곤고공탁무지)
巨喜人空法亦空(차희인공법역공)
珍重大千三昧(진중대천삼매)
電光影裏斬春風(전광영리참춘풍)
지팡이 꽃을 땅도 천지간에 없다마는 나와 법이 공하거늘 그 무엇 걱정하리 진기하고 우습다 원나라의 세치권이 번개불의 그림자를 불바람이 베려하네

을 깨닫게 된다. 공(空)이란 '실제하지 않음(非有)' '존재하는 것 같지만 거짓된 상(假有)'이라는 뜻으로 자아가 공한 것을 아공(我空 혹은 人空), 남과 대상이 공한 것을 법공(法空)이라고 하며 이 둘을 합쳐 이공(二空)이라고 한다.

(반야심경)에 無안·이·비·설·신·의, 無색·성·향·미·촉·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 안이비설신의 아공의 이치를 밝힌 것이고 무 색성향미촉법의 법공의 이치를 밝힌 것이다. 눈·귀·코·혀·몸·의식으로 이루어진 자기라는 것은 본래부터 허망된 인연기운의 모습이므로 있는 것 같지만 허상이요, 이로부터 부딪히는 물질·소리·냄새·맛·감각·대상의 온갖 법 또한 인연기운으로 일어난 가상이다. 그러나 여기에 삶이 죽음이 다 하는 것이 다시 달라붙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목숨을 번개불 그림자에 비유하여 아공의 도리를 밝히고 내려치는 칼날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관념·욕망·집착 깨뜨려야 空門에 들수 있어
소리·냄새등 온갖 현상 인연이 지어낸 가상

실로 죽을 앞에서도 한점 미동 없이 읊은 이 계승 속에는 대도인의 드높은 기상이 서려있음을 알 수 있다. 계승 속의 '지팡이 하나 꽃을 땅도 천지간에 없다'는 것은 스님의 마음 살림살이를 가리킨다. 아무런 집착도 욕심도 없는 무소유의 마음이 그것이다. 우리에게 중생들 마음속엔 온갖 욕망이 팍차 있다. 보고 듣고 맛 본 일체의 인연들을 자신속에 저장한채 굳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인의 마음은 세상의 어떠한 것도 자기것으로 두지 않는다.

이러 '나와 법이 공하거늘 그 무엇 걱정할까'라는 것은 스님의 부동하고도 여려한 '깨짐의 경지'를 가리킨다. 도인이라 일체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다. 도인의 마음속엔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왜냐 하면 나나 남이다 하는 것은 모두 분별 망상이 만들어낸 거짓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생들 마음에는 '나'가 있고 또 그 '나'에 의해서 비추어지는 남과 세상이 있기도 여긴다. 자신의 마음과 육신은 물론 이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산하대지와 일월성신 그리고 모든 삶의 현상들을 실제로 여긴다는 말이다. 이것을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온 어리석은 관념에서 기인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그림자를 스스로 시인하고 두가지 잘못에서 벗어나면 나와 세상이 함께 '공(空)'하여 참이 아니었음



◇ 서정성 스님 작

을 불바람에 비유하여 법공의 도리를 밝힌 스님의 계승은 불법의 궁극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주는 상승의 법문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불문(佛門)을 공문(空門)이라고 했다. 공의 체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시(無始) 이래로 지어왔던 고정된 관념, 대상을 향한 욕망, 자신에 대한 집착 등을 철저히 깨뜨려 반야지혜를 드러낼 때 체험되는 것이다. 한마음이 공해지면 아공 법공이 모두 성취되는 것이니 자신의 마음부터 살펴볼 일이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현대과학과 만나는 화엄철학

양형진 교수 석림논총 30집에 기고

가이아 이론 "모든 존재 서로 연결" 연기법 해당
미립자의 생성소멸 '色·空'의 상즉상입 실상

이 없이 융합하는 것)과 상즉(相即·이 것과 저것이 서로 같아져 하나가 됨)의 구조.

지구의 생물권과 대기권, 해양, 토지까지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는 '가이아 이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기

법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 법칙'은 천체간의 모든 법칙이 상입의 구조에 해당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유기물에서 생명의 기본 물질이 생성되는 생명

체계와, 우주 공간에서 별들이 중력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즉의 구조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양성자와 중성자 내부의 무수한 미립자들이 순간 순간 생성되었다 소멸하는 것은 색이 드러나고 공이 숨었다가 다음 순간 공이 드러나고 색이 숨는 과정의 반복으로 상즉상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해 생명과 물질세계를 하나로 보는 화엄의 세계관은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을 배타적으로 대대 온 서구 세계관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철학이며,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세계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한명우 기자

12세기 십우도·화두·명상음악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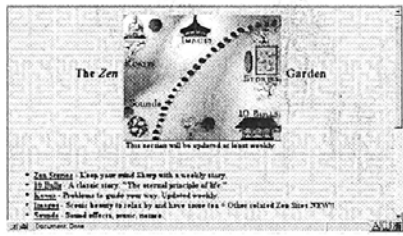
유마선원 사이버 기행 일본의 禪庭

일본불교가 개설한 웹사이트 선정(禪庭, Zen Garden)은 일본과 중국의 십우도, 선사(禪詞), 화두, 그림, 음성 등의 정보를 매우 새롭게 제공해 주목 받고 있다.

이중에서 십우도가 이 사이트의 백

미, 십우도는 미국의 드블스사에서 1953년 최초로 출판한 이래 중국과 일본의 십우도가 사부대중이 절거는 깨달음의 경지를 잘 구현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선정에서 제공한 십우도는 12세기경 중국의 가관스님이 화쪽에 담고 그 경계를 설명한 것을 일본의 관화가 도쿠리키가 목판에 옮기고 P.렘스(美)가 번역해 출판한 <Zen Flesh>(영커링, 美)에서 발췌했다. 화두는 마우라스님의 <Zen Koan>(하버스트리, 美)에서 매우 새로운 것을

콜라 제공한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중국의 14세기 입제종의 스님의 화두인 '황소가 외양간을 등지다'와 같은 고래의 화두를 비롯해 이케이쿠스님이 죽음·어머니·원숭이·국화 등을 주제로 동시대 재가불자에게 띄운 화두가 소개된다. 이외에도 중국·미얀마·태국 등지의 불교성지의 전경을 담은 10여점의 사진을 제공하며 안개·천둥·현음(絃音) 등의 주제로 작곡된 명상음악을 제공한다. 일본의 선정은 'http://www.omius.com/~zenyard/zenyard.htm'를 방문하면 된다. <우>



The Zen Garden. This site will be updated in next week. 1. Zen: A clear way. The central principle of life. 2. Zen: Problems to guide you step by step. Updated weekly. 3. Zen: From history to today by and have same as a. Olden related Zen Sites 2007. 4. Zen: Sound effect, music, nature.

경력직 간부사원 모집

불교방송과 함께 꿈을 펼칠 중견 간부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모집 부문 | 인원 | 응시 자격 |
|-------|-----------|---|
| 경력사원 | 국·부국장급 0명 | · 기획관리(행정), 재무관리, 방송사업분야 업무경력 5년이상자 · 정보시스템관리 유경력자 · 대졸이상자로서 일반행정, 재무관리분야 전공자 · 연령 45세 - 50세(남자) · 종교: 불교 |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3차: 신체검사(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가. 자필이력서(연락처 기재) 1부
- 나. 자기소개서(경력사항 상세히 기록) 1부
-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4. 서류접수

- 가. 기간: 1997.3.3(월) - 3.12(수)
- 나. 접수처: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불교방송 관리국 총무부
-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래사 또는 우편접수

5. 기타

-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나. 문의처: 불교방송 관리국 총무부 (02)705-5222,5224

불교방송 FM101.9 MHz
BBS Broadcasting System
대표전화: (02)705-5114 · FAX:(02)705-5229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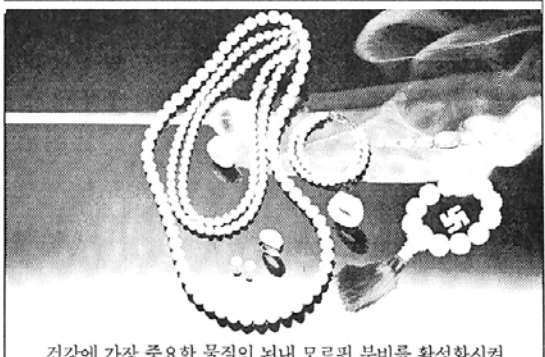
- 과정(아간 및 통신생) ※ 추가 및 편입생 모집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경, 요령,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
- 모집인원: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3개월(각과정)
- 원사-접수: 1997년 2월 17일 ~ 3월 17일
- 개강일시: 1997년 3월 17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선법사과정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장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통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 전화·서신문의 하던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로구 낙원동 243-3번지
담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천축산가 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 내몸-부처님도망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꿈시다 (단전호흡 효과)
-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화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 ★ 장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잡혀 갑니다. (조금의 차가 1마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들립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
기록하였다 (93.2.17 서울신문)

포도자기 도이름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도자기대회
최우수상 수상

독한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시 주부(漢主)의 진옥은 백병을
드스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레강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毛山家 (우편번호)
777-0105